



2022년 5월 보건소식지

(가족과 함께하는 흡연예방교육)

삼례중학교
가정통신문 제 43호

2022년 5월 30일

① (우)5534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53-23

☎ 063-291-2624,

http://samrye.ms.kr.

가족과 함께하는 흡연예방교육

▶ **담배의 진화**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궤련형 담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담배들이 소비되고 있고, 담배회사들의 담배 제조 및 판매 양상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정 유형의 담배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유형의 담배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담배들은 **여성 및 청소년과 같은 특정 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 **간접흡연** :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연기)과 부류연(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이 혼합된 연기에 모두 노출되는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부류연에 주로 노출됩니다.

▶ **3차 흡연** :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흡착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달라붙은 화학물질은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장기간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흡연이라고 정의합니다.



▶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 :

시장진입 초기, 전자담배는 ‘기존담배(궐련)보다 안전하고 니코틴 외에 다른 유해한 성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및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 성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 액상에는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수증기”로 홍보되었던 배출물은 수증기가 아닌 액상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을 포함한 에어로졸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담배(궐련)와 비교하면 전자담배가 ‘덜 위험’할 가능성은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담배가 ‘안전한 담배’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어 니코틴 의존의 문제는 지속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

- ①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음.
- ②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 성인흡연자로, 평생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
- ③ 니코틴 중독, 폐 기능 및 폐 성장 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 죽상동맥경화증 등을 유발.
- ④ 비흡연 토래에 비해 기침, 가래, 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남.
- ⑤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다는 보고가 있음.



청소년기 흡연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담배의 독성물질에 쉽게 노출되며 이로 인한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 흡연육구 다스리는 4D 원칙 실천하기!

